

광주시 '5+1 현안' 순항...해법·방향성 구체화

복합쇼핑몰, 전방·일신방직 부지 사전 협상 돌입 백운지하차도 건설 정상 추진...군공항 이전 진일보 지산IC 진출로 곧 중지부...어등산 개발 市 결단 남아

민선 8기 강기정 광주시장이 취임 직후 연말까지 해법을 제시하기로 했던 이른바 '5+1 현안사업'들이 하나, 둘씩 꼬인 실태를 풀어나며 속도를 내고 있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5+1은 복합쇼핑몰 유치,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 백운광장 지하차도 설치, 지산 나들목(IC) 진출로 개통,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군 공항 이전 사업이다. 시는 단기 해결이 어려운 군 공항 이전은 '1'로 분류했다.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복합쇼핑몰 유치는 현대백화점그룹은 지난 11월 18일 방직공장 터에 '더현대 광주'를 건립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신세계프리퍼티도 어등산에 스타필드 입점을 추진한다고 선언한 상태며, 롯데그룹도 복수 후보지 사실을 거쳐 막판 사업 추진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 사업도 민간 사업자측이 광주시 협상 조건을 반영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사전 협상이 시작됐다.

상습 정체 구간이자 교통사고 다발 지점인 백운광장 지하차도 건설사업도 일부 반발이 있긴 했지만, 설득 끝에 정상 추진되고 있다.

광주시는 설치 효과, 침수 대책, 주변 개발 여건, 교통량 등을 검토한 결과 찬반이 있었던 지하차도

개설을 결정했으며, 이달 말까지 일방에서 양방향으로 보완설계를 마치고 복판, 지하차도 구조물 설치공사에 들어가게 예정이다.

광주시는 지하차도가 개통되면 백운광장 통행시간이 기존 8분대에서 4분대로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왼쪽 진출 방식으로 안전성 논란을 빚은 지산IC 진출로 개통 여부도 조만간 결정된다. 교통사고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 지표 확보, 공론화 진행을 위한 '교통사고 예측 및 위험도 평가 용역'이 지난 10월 시작돼 내년 3월까지 마무리되며, 기존 예상대로 시민 안전을 고려한 폐쇄적으로 가다가 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0여년간 걸고 있는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에도 올해 의미 있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그동안 무안 등에서 주민 반발로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던 이전 설명회가 처음으로 합평에서 열리면서 이전 후보지 선정의 새 국면을 맞았다는 분석이 나

온다.

특히 강기정 광주시장이 홍준표 대구시장과 민선 8기 달빛동맹 강화 협약을 체결하고 광주 군 공항 이전과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해 특별법 제정에 협력한 점도 군 공항 이전 사업에 힘을 보태고 있다.

다만 2005년 계획 수립 후 17년째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는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은 광주시 판단에 따라 지연 또는 속도를 낼 수 있는 상황을 맞고 있다.

광주시가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박탈 당한 서진건설과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지만, 서진측에서 대법원 상고를 예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에선 광주 공동체 발전이라는 대명제 실현을 위해 광주시와 사업자간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법적 소송을 중단하고, 관광 인프라 조성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75명 승진 의결 4급 12명·65급 25명 등

광주시는 2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4급 12명, 5급 25명 등 모두 75명을 승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사 명단 21면>

지난 10월 발표한 민선 8기 인사 혁신안을 토대로 과장급(4급) 이상은 시정 기여도, 리더십 등을 평가해 과감하게 박탈하고 5급 이하의 승진 후보자 명부 순위를 존중했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광주시는 내년 1월 1일자 4급 이상 간부 전보인사에 이어 같은 달 16일까지 5급 이하 전보인사도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영호 광주시 인사정책관은 "민선 8기 인사 혁신안에 기반해 다수가 공감하고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밑거름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연공 서열 위주 승진 관행을 타파하고 구체적 성과를 창출한 직원을 과감하게 박탈하는 등 조직 활력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자매도시인 일센다이시를 가다 광주시는 최근 일본 센다이시와 자매결연 20주년을 기념해 일본 현지에서 방문단을 파견했다. 대표단은 고교리 가즈코 센다이 시장을 만나 자매결연 20주년을 축하하고, 이어 센다이시의회 의장단과 만난 자리에서 도시 간 교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광주시 제공>

“내년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전남서 개최를”

김영록 지사 제안...2023 순천만정원박람회 성공 협약 체결도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23일 서울H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내년 전남에서 열리는 전국체전 일정에 맞춰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전남 개최를 제안했다.

이날 총회에서 대통령 지역공약·국정과제(지방시대 10대 과제)의 추진상황 및 대응방안과 2023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운영방향 등이 논의됐다. 또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국제행사 성공 개최를 위해 각 시도와 시도지사협의회 간 업무협약을 했다.

김영록 지사는 또 총회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관 ▲전남에 국립과대학 설립 ▲지방행정부처(1급) 신설을 제안했다. 또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와 2022-2023 전남 방문의 해 2차년도 운영을 홍보하고 참여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방환경청 등 사실상 지방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인력·재원을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시·도에 우선적으로 이관해야 한다”며 “지방의 목소리가 중앙에 잘 전달되도록 시도지사협의회가 적극 노력하자”고 말했다.

특히 공공임상교수제 제도와 관련해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지역 여건상 빈껍데기에 불과하고, 지방의대는 증원의 문제가 아니다”며 “의대가 없는 지역에 우선 설치돼야 한다”고 전남 지역 공공의료물 위한 국립의대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총회에서 내년에 개최되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시도지사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16개 시·도지사는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여수·남해 해저터널, 영호남 교류·남해안 해양관광 거점될 것”

광주전남연구원, 통행시간 단축...인적·물적 교류 활성화 기대 국도 77호선 마지막 단절구간 연결...남해안 관광 연속성 확보

영호남 화합과 상생발전의 상징인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사업'이 지역간 동일 생활권 구축을 통한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와 남·남해안을 잇는 해양관광의 거점 마련 등 지역현안을 다방면에서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전남연구원은 26일 '광주전남 정책 브리프'를 통해 보고서 '여수-남해 해저터널 기대효과 분석'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 연구원은 여수-남해 해저터널이 영·호남 간 인적·물적 교류 촉진, 교통사고 저감, 관광 시너지 및 정주여건 보

완 등 해저터널 건설에 따른 다양한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내 최초의 해저터널인 통영해저터널과 가덕해저터널, 보령해저터널이 있으며, 모두 지역 통합과 인적·물적 교류 촉진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사업은 현재 시공 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향후 실시 설계를 거쳐 2023년 하반기에 착공될 예정이다.

광주전남연구원 양철수 책임연구원은 “그간 여수시와 남해군은 근거리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직결 교통노선이 없어 광양시로 52km를 우회해 차량으로 약 70분이 소요됐다”며, “해저터널을 이용하면 통행시간이 10분 이내로 단축되어 출퇴근, 업무, 관광 등을 목적으로 한 통행량이 증가해 지역간 인적·물적 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어 “남·서해안 해상관광 교통로인 국도 77호선의 마지막 단절구간을 해저터널로 연결함으로써, 부산시를 기점으로 남·서해안을 따라 경기도 파주시까지 이어지는 해양관광 거점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 숨은 마을 이야기 책으로 나왔다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마을을 비추어 봄' 발간

전남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가 최근 전남의 마을이야기를 담은 책자 '마을을 비추어 봄'을 발간했다. 전남의 마을이야기를 담은 책자는 점점 소멸해가는 지역의 이야기를 발굴·소개함으로써 마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마을활동가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제작됐다.

전남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는 이야기 발굴을 위해 지난 9월 마을활동가와 각 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마을기록활동가 교육과정을 실시했다. 마을기록활동가 교육과정은 마을에서 일상 삶의 흔적, 마을살이의 기억, 마을의 숨은 이야기와 각 마을의 역사, 풍습, 전통, 문화재, 특산물 등을 사진과

글로 기록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전남 시·군에서 모인 20여 명이 교육을 수료했으며, 교육 후 수료생들은 자신이 속한 마을의 이야기를 1편 이상 발굴·취재해 게재했다. 책자 '마을을 비추어 봄'엔 공간, 사람, 사물, 활동 분야로 나눠 전남의 마을이야기 18편과 마을활동가의 기고문을 담았다.

노용숙 센터장은 “2023년에도 전남 마을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책자를 발간할 계획으로 마을기록 활동가 교육과 마을이야기 발굴에 전남도민의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제 제201210-중-116878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바른자세, 꾸준한 운동, 세심한 관리로
든든한 '인생' 튼튼하게 '즐기세요'

척추 무릎 어깨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첨단우리병원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 전원 리모델링
- 칼라강판 지붕공사
-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 전원주택신축
- 공장신축
- 징크판넬시공
- 창호(샷시)교체
- 농막
- 옥상스틸방수

MODERN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 서구 서항2길3(서항동)